

조선 시가(朝鮮詠)의 하이쿠 권역(俳域)*

- 박노식(朴魯植)에서 무라카미 교시(村上杏史)로

니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1. 조선 하이쿠(俳句) 문단의 문제

바다를 건넌 문학이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해외로 가는 경로를 생각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하이쿠와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다. 현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영어 하이쿠를 필두로, 이제 하이쿠는 일본어라는 경계를 넘어서 몇 개의 언어로 옮겨지고 있다. 일본어 문예 작자로 한정한다고 해도 하이쿠는 단가(短歌)와 더불어 고향을 떠나 이국으로 건너간 일본인들이 옮겨 온 문예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 통치하의 조선 반도는 경성제국대학의 영어·라틴어 교사 R·H·브라이스로부터 시작되는 영어 하이쿠 원류 중 하나이고, 재조선 일본인 하이쿠 시인이 조선 하이쿠 문단이라고 칭할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지역이다.

본고의 사정범위는 조선반도에서 하이쿠의 노정을 조선 시가의 하이쿠 권역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조선시가라 해도 그 담당자에는 세 가지 층이 있다. 우선은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 가와히가시 헤키고토(河東碧梧桐), 이다 다코쓰(飯田蛇笏) 등 한국에 간 경험이 있는 일본 내지의 하이쿠 시인 층. 다음으로

* 본고는 日本近代文学会関西支部編『海を越えた文学-日韓を軸として』(和泉書院, 2010.6)에 게재된 논고를 번역, 전재한 것이다. 또 박노식의 하이쿠 표기 등은 村上杏史編『朴魯植俳句集』에 의거했다.

** 에히메대학 준교수.

이시지마 기지로(石島雉子郎), 구스메 도코시(楠目橙黄子), 히노 소조(日野草城) 등 재조선 일본인 하이쿠 시인 층, 그리고 조선인 하이쿠 시인 층이다. 조선 하이쿠는 이들 세 개의 층이 교차, 연동함으로써 형성된다. 하지만, 조선 하이쿠 문단이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계 하이쿠 문단의 중심이었던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일본 내지와 조선반도 사이에는 작법상의 큰 차이가 있다. 다카하마 교시의 『열대계제소론보유(熱帶季題小論補遺)』는 1936년 싱가포르 체험에 근거한 문장인데, 여기에서 교시는 이국에서 하이쿠를 읊을 때의 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이쿠는 일본 국토에서 생겨난 것으로 사이지키(歲時記:하이쿠의 계절어 및 주제를 정리한 것)는 본토의 것이다. 그것을 열대지방에 가져 가 이식하려는 경우는 다소의 삭제 필요하다. 별도로 열대지방의 사이지키를 작성하는 게 좋다는 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각 지방에 사이지키가 생기면 하이쿠의 통일이 어려워진다. 어디까지나 본토의 사이지키를 존중하여 대체적으로 거기에 준거하고, 다만 열대지방에서는 특별히 삭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¹⁾.

여기에는 제외 하이쿠 시인도 또한 일본의 사이지키를 존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설령 그 곳이 이국의 땅이라 해도 독자적인 사이지키를 편집하는 것은 ‘하이쿠의 통일’을 방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작법상, 이주자의 형편이 맞지 않는 것도 있을 테니까 ‘다소의 삭제’라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카하마 교시는 ‘일본인 특히 하이쿠를 만드는 사람은 화조풍영(花鳥諷詠:화조풍월을 운율에 맞춰 읊는다는 의미, 다카하마 교시의 조어)에 특수한 기능이 있다’고 해서, 화조풍영을 고래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타고난 민족적 기능이라고 평가하고, 또 ‘훗카이도’, ‘대만’, ‘사할린’, ‘조선’, ‘만주’, ‘아메리카’를 차례로 예로 들어 각 지역에서의 하이쿠 흥성을 ‘이런 식으로 국위가 발전함에 따라 하이쿠의 세력도 사방팔방으로 넓어져 간다’고 파악한 인물이다²⁾. 즉

1) 高浜虚子『熱帶季題小論補遺』『定本高浜虚子全集』第十一卷(毎日新聞社、1947)

2) 高浜虚子『私は矢張守田派である』『定本高浜虚子全集』第十一卷(毎日新聞社、1947). 초출은 1933년 12월. 여기에 대해서는 棚沢健『プロレタリア俳句と花鳥風月—一九三〇年代における季題と植民

교시는, 바다를 넘어선 하이쿠의 확대를 일본의 세력 확장과 동화정책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재조선 일본인 하이쿠 시인이 품고 있었던 하이쿠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에서 하이쿠 활동이 본격화하는 것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 이후이다³⁾. 이 시대의 조선 하이쿠를 견인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어용신문으로 개편된 『경성일보(京城日報)』의 「경일하이쿠(京日俳句)」란이다. 경성일보사 사장은 『국민신문(國民新聞)』 하이쿠란의 편집을 담당한 호토토기스계의 중진 요시노 사에몬(吉野左衛門)이었고, 「경일하이쿠」의 편선자는 이시지마 기지로와 구스메 도코시가 이어받고 있었다⁴⁾. 도코시는 이 시기를 ‘확실히 우리들은 호토토기스의 하이쿠를 우리 하이쿠의 정도라 믿었고, 호토토기스에 실려 있는 교시 선생 선정의 잡영(雜詠)을 하이쿠 창작의 최고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조선 하이쿠 문단은 이때부터 호토토기스계 하이쿠 문단이 중심이었고, 다카하마 교시의 하이쿠 문단 복귀와 호토토기스 잡영란의 부활에 보조를 맞춘 것처럼 서서히 발전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1910년대 전반의 조선 하이쿠 문단은 시행착오의 시기에 해당한다. ‘우리 조선 하이쿠계 취향이 대부분 중앙 하이쿠의 자극을 받고 움직인 것이고, 또 이를 추종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알 수 있다. 또 당시의 대표적 하이쿠라 해도 [...] 대개는 아직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구스메 도코시의 회상에서는 ‘다만 당시에 조선의 풍물을 읊어 지방적 특색을 표현한 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하이쿠 문단의 하나의 이채였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도 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조선 시가는 그 ‘지방적 특색’의 표현에서 요청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 하이쿠 문단이 다카하시 교시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 내지의 호토토기스계 하이쿠 문단과는 별개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地」(『繹』第一二号, 2000.3)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3) 阿部誠文『朝鮮俳壇-人と作品』上卷(花書院, 2002)

4) 蝸牛洞『雉子郎氏と朝鮮』『松の実』第三号(1921.2)

5) 橙黃子『京城の俳句界と私(三)』『松の実』第七号(松の実吟社, 1921.4)

2. 조선 시가(朝鮮詠)의 하이쿠 권역(俳域)

하이쿠 잡지 『마쓰노미(松の実)』를 중심으로 조선 하이쿠의 확산을 파악해 보자. 1920년 10월에 이시지마 기지로와 구스메 도코시 등이 경성에서 창간한 『마쓰노미』(松の實吟社)는 이노우에 우산코(井上烏三公)의 『가사사기(かささぎ)』(부산, 1924년 창간)와 기타가와 스케히토(北川左人)의 『나쓰메(ナツメ)』(경성, 1926년 창간) 등 동시대에 각지에서 발간된 하이쿠 잡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하이쿠 잡지로 알려져 있다. 『마쓰노미』 창간호와 제2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3호 후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제1호 발행 후 신입사원이 약 100명 늘어 함께 318명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조선 만주 하이쿠계를 위해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⁶⁾. 당시 조선에서의 하이쿠 결사가 얼마만큼의 규모였는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 문장을 기록한 구스메 도코시의 ‘유쾌’하다는 말의 느낌에서 추측해 보면, 사원 총수 318명은 예상을 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 조선 만주 하이쿠계’라 쓰여 있는 것처럼 『마쓰노미』는 조선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널리 구 ‘만주’ 지역을 포함한 외지 하이쿠의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 만주지역의 하이쿠 문단이 아직 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의 하이쿠 문단과 대비해 조선 만주지역의 하이쿠 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1922년 3월에 도쿄로 전근을 가기 위해 약 7년간의 조선생활을 마치게 된 구스메 도코시는 『마쓰노미』 창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원래 『마쓰노미』의 발행 목적은 조선과 만주에 거주하는 하이쿠 시인 상호간, 또 내지에 있으면서 특히 여기 이국땅에 연고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하이쿠 시인간의 친밀함을 맺는 기관으로 하려는 데 있었다. 오늘날 이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것일까?⁷⁾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 여기에서는 『마쓰노미』 창간 목적이 단적

6) 橙黄子「社員諸兄へ」『松の実』第三号(松の実吟社, 1920.12)

7) 橙黄子「お別れの言葉」『松の実』第一九号(1922.4)

으로 기록되어 있다. 재조선, 재만주에서 일본인 하이쿠 시인 상호가 ‘친밀함을 맺는’ 것, 즉 하이쿠를 통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애당초 외지 또는 해외 이주자에게 하이쿠는 창작활동에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일본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확인하고, 하이쿠회(句會) 참가나 하이쿠 잡지 투고를 통해 이주자들끼리의 유대를 밀접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이국땅에 살면서 모국의 문예를 통해 동료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쿠는 이주자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문예였다. 그래서일까. 『마쓰노미』가 창간 당시에 목표로 했던 하이쿠의 모습은 극히 단순명쾌한 것이었다. ‘본지 창간에 즈음하여 우리들은 다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하이쿠 문단의 한 권위로서 문단에 공헌하겠다는 등의 생각은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선의 색, 만주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라고⁸⁾. 즉 일본 내지의 하이쿠 문단에 대항해서 외지 하이쿠 문단의 확립이나 외지 시가의 독자성을 기도하기보다 이주자의 생활에 입각한 이국땅의 ‘색’이나 ‘냄새’를 하이쿠로 읊는 것을 장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쓰노미』 창간에 호응하는 형태로, 외지 하이쿠 문단의 확립이나 외지 시가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선, 만주 각지에서 들려오게 된다. 『마쓰노미』 투고란에는 경성뿐만 아니라 조선, 만주 각지의 지방 사원이 쓴 하이쿠 관련 기사가 거의 매호에 걸쳐 게재되고 있는데, 제3호에는 요슈(葉舟)의 『자산에서(慈山より)』라는 제목의 투고가 게재되어 있다. 첫머리에는 ‘요슈가 사는 한적한 읍내는 친구로 삼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부인이나 어머니를 상대로 하이쿠를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적혀 있다. 그는 자산(慈山)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편 하이쿠 창작에 몰두하여 『호토토기스』, 『교쿠스이(曲水)』, 그리고 『마쓰노미』를 구독하는 인물이다.

이번에 『마쓰노미』가 발간되었으므로 우리들의 사생(寫生)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조선의 사정을 나타내는 시구를 도쿄로 보내어 실패하는 일이 많았고, 따라서 눈앞의 실재를 묘사해도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마쓰노미』가 지금부터 일 년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딘가 허전합니다. 어디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

8) 無記名『句集出版のこと』『松の実』第二八号(1922.11)

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영구히 우리들 이주자를 위해서 조선, 만주의 대자연을 개척해 주세요.9)

글 중에 ‘도쿄로 보내 실패’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호토토기스』 잡영선(雜詠選)이나 과제선(課題選) 등에 하이쿠를 두고해도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이쿠 잡지라는 미디어의 특징은 단지 하이쿠 잡지를 읽는 것 뿐이 아니라 사원이 투고한 하이쿠가 편선자에게 선택되어 수록된다는 쌍방향적인 성격에 있고, 그것이 사원 스스로가 분발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요슈는 탈락했을까. 그는 그 이유를 ‘조선의 사정을 나타내는 시구’라는 점에서 찾았고, 자신의 하이쿠는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를 묘사해도 시시하다’고 개탄한다. 여기에서는 사이지키를 예로 들어 앞에서 설명한 계절어나 화조풍영에 준거한 호토토기스계 하이쿠의 폐쇄성이 엿보인다. 그래서 요슈는 조선에서 탄생한 『마쓰노미』에 ‘우리들 이주자를 위해서 조선, 만주의 대자연을 개척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소가와(楚川) ‘압록강변에서’라는 투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하이쿠회나 하이쿠 시인이 모두 압록강 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평안북도의 하이쿠계도 다소 변화는 있지만 아직 유치하고 적요(寂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이쿠의 영역을 넓히고 싶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10). 이것은 평안북도 거주자에 의한 단신인데, 『마쓰노미』는 이런 지방 하이쿠의 정보를 각지의 사원에게 발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요슈의 요청이든 소가와의 초심표명이든, 『마쓰노미』 지방사원의 목소리는 각각의 거주지 하이쿠 정보와 함께 조선 만주에서 하이쿠 권역의 확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만주 지역의 지방 하이쿠 시인의 목소리가 창간 직후의 『마쓰노미』에 전달된다. 이러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인지 이어지는 제4호에는 구스메도코시의 『조선과 계절어(朝鮮と季節)』라는 제목의 하이쿠론이 게재되어 있다. 도코시는 우선 일본 거주자의 생활에서 풍속습관을 포맷함으로써 성립하게 되

9) 葉舟『慈山より』、『松の実』第三号(1920.12)

10) 楚川『鴨綠江畔より』、『松の実』第三号(1920.12)

는 계절어에 관해 ‘우리들 조선 거주자가 하이쿠를 창작하는데 항상 부자유를 느끼는 것은 하이쿠의 계절어 정취를 충분히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재조선 일본인의 하이쿠 창작이 곤란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부자유를 보완해야 할 점이 조선 거주자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조선의 경관이나 조선민족의 풍속과 같은 ‘우리 하이쿠의 새로운 재료’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은 하이쿠의 처녀지’가 되고 이들을 ‘새로운 계절어’로 읊는 것이 조선 시가의 특징이라는 주장이다.

우리 조선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이쿠 창작에 있어 항상 견문이 부자유스러운 계절어로 창작을 하고 여기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안목을 새롭게 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계절어를 연구하는 데에 노력한다면 창작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자기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이쿠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사생의 제일보이다.¹¹⁾

조선의 실태에 어울리지 않는 일본의 계절 정취나 사이지키에 속박되면서 이국의 풍물을 읊는 것보다 지금 여기 자신이 있는 이국의 땅을 읊는 것. 이것이 구스메 도코시가 말한 조선 시가 독자적 신 계절어의 제창이다. 여기에서 ‘자신의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생’의 개념을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하여 하이쿠 창작, 하이쿠론 양면에서 조선 하이쿠의 형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독자성에 관한 논의는 이윽고 재조선 일본 하이쿠 시인의 지역적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문제로 접합하게 된다.

하이쿠가 일본민족 특유의 예술이고, 일본 국토에서 배양되고 성장한 이유를 고찰할 때, 하이쿠는 완전히 하나의 향토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 이 향토예술로서의 하이쿠를 우리 조선으로 옮겨 와 새로운 조선의 하이쿠로서 특색미를 완전히 갖추게 하는 것은 조선에서 일본인의 신문화 건설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나는 우리 조선에 살면서 하이쿠의 신천지를 개척하려는 자는 이렇게 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한다고 믿는다.¹²⁾

11) 橙黃子「朝鮮と季題」『松の実』第四号(1921.1)

여기에서는 조선 시가에서의 신 계절어의 제창으로 시작된 논의가 ‘새로운 조선의 하이쿠’를 재조선 일본인의 향토예술로 내세우고자 하는 논의로 변환되고 있다. 이것은 외지 이주자 특유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내지의 하이쿠 문단에 대항해서 조선 하이쿠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조선 시가의 하이쿠 권역을 넓히자고 호소하는 『마쓰노미』 동인의 주장은, 한편으로 재조선 일본인의 ‘신문화 건설’이라고 하는 마치 식민지주의적인 성격을 띤 지역적 아이덴티티 형성을 주장하는 데에 이르렀다.

3. 목포의 조선 하이쿠 시인 박노식

하이쿠 잡지 『마쓰노미』에서 본 것처럼, 재조선 일본인 하이쿠 시인들은 일본의 하이쿠와는 다른 조선 시가를 ‘향토예술’로 파악하고, 그 하이쿠 권역의 확장을 목표로 했다. 『마쓰노미』의 창간으로 시작된 1920년대는 경성뿐만 아니라 조선반도 각지의 하이쿠 활동이 활발해지고 크고 작은 다양한 하이쿠 모임이 나타난 시대이다. 활황을 보이는 조선 하이쿠 문단,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성과가 1930년의 기타가와 스케히토(北川左人) 편 『조선하이쿠선집(朝鮮俳句選集)』의 간행이다. 『조선하이쿠선집』은 1927년부터 3년간 발행된 하이쿠 잡지나 일본어 신문에 게재된 조선 하이쿠 5만여 구가 수집되어 그 중에서도 우수한 1만여 구를 계절별로 수록하고 있다. 편자는 간행할 때 다음 두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 하나는 조선 만주지역 고유의 계절어 수집이다. 『조선하이쿠선집』은 조선 시가를 위한 사이지키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인 하이쿠 시인의 하이쿠 수록이다. 이 선집의 「후기(卷末の辭)」에는 신 계절어 수집에 더해 ‘근래에 조선인들이 하이쿠를 의외로 많이 즐기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특기하고 있다.¹²⁾

하지만, 조선인 하이쿠 시인의 탄생이 특별히 『조선하이쿠선집』에서 처음으로 명백해진 것은 아니다. 조선 하이쿠 문단이 활황을 보이는 1920년대, 일본의 하

12) 橙黄子「朝鮮色の句」『松の夫』第一六号(1922.1)

13) 北川左人編『朝鮮俳句選集』(靑壺發行所, 1930)

하이쿠 시인들에게 조선인 하이쿠 시인의 존재는 이미 자명한 것이었다. 전라남도에 목포 카리타고사(木浦かりたご社) 소속의 박노식(1897-1933)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타가와 스케히토 『호남 하이쿠 문단을 바라보다 (3) 최근의 두 가지 자극(湖南俳壇を覗く(三)近ごろ二つの刺戟)』은 1928년에 목포에서 개최된 전조선 하이쿠 대회(전국 하이쿠 대회)의 모습을 ‘우리 하이쿠 문단이 이렇게 서서히 새로운 경역(境域)을 발견하여, 새로운 방면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목포의 지방 하이쿠 문단과 박노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예로부터 목포지역은 아니 목포의 하이쿠 문단은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역의 이점이 적다. 새로운 풍조에 친숙해지기에는 너무나도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 마침 수년전에 후쿠오카의 『아마노가와(天の川)』가 주최한 요시오카 첸지도(吉岡禪寺洞) 씨의 내유(來遊)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그 다음해부터 새로운 작가, 장래성 있는 작가가 많아졌다. 그 첫째로 손꼽을만한 사람으로 박노식씨가 있다. 삼원랑(三猿郎), [...] 유포(柳浦), 토경자(兎徑子), 성동(星洞) 씨 등도 또한 증견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¹⁴⁾

목포의 박노식은 그 당시 이미 조선내외의 호토토기스계 하이쿠 문단에 알려진 존재였다. 그는 1921년 봄에 하이쿠를 시작, 일찍이 ‘간신히 뛰어 진흙을 기는 날벌레 여름이 가깝구나’(僅か飛んで泥這う羽虫や夏近し) 외 세 구가 『마쓰노미』 제21호(동년 6월)에 수록되었다¹⁵⁾. 그리고 다음해 9월에는 ‘강가의 마을 폭넓은 여름 버들’(川添の町幅広し夏柳)이라는 시구로 호토토기스 잡영 첫 입선을 달성한다. 그는 1933년에 38세로 요절하기까지 1만여 구의 하이쿠를 남기고, ‘조선의 마사오카 시키(政岡子規)’라 불리던 조선 하이쿠 문단의 실력자였다¹⁶⁾. 하이쿠 활동에 전심했던 12년간은 ‘천재적 시낭(詩囊)에 노력의 박차를

14) 北川左人『湖南俳壇を覗く(三)近ごろ二つの刺戟』、『京城日報』(1927.6.21)

15) 박노식이 하이쿠를 시작한 것은 지인에게 목포의 백조음사(白藻吟社)를 소개받은 것이 계기였다. 최초의 첫 구는 ‘잔디 태우는 연기 가볍게 연못 위를 기어간다(芝を焼く烟かるく這ふ池の面)’라고 전해진다.(北川左人『逝ける俳人朴魯植君(上)』、『京城日報』1933.5.28.)

16) 다른 평가를 예로 하나 들고자 한다. ‘스승도 없이 새로운 풍의 하이쿠를 창조한 바쇼(芭蕉)도 위대하지만 인정, 풍속, 언어가 다른데 하이쿠를 대성시킨 박노식씨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으로 영시를 잘 하는 노구치 요네지로(野口米次郎) 씨의 명성이 자자함을 생각해 보면, 박노식씨의 이름도 후세에 남아도 좋다고 생각한다’(安達緑童『鮮人と松尾芭蕉』『かりた

가해 내선(內鮮)의 하이쿠 문단에 그 이름을 높이고, 과제 및 잡영의 편선자로 관계하는 하이쿠 잡지가 열여섯, 직접 지도를 받는 지방 하이쿠회도 열 몇 개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팔면육비(八面六臂)의 활약이었다¹⁷⁾. 그야말로 '조선 하이쿠 문단의 공로자중 공로자'이며, '동 잡지 『가리타고』 및 경성일보(京日紙)를 통해 조선의 하이쿠를 친절하게 이끌고, 유력한 하이쿠 시인을 배출해 낸 공적은 우리 하이쿠 문단 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다'라고 높게 평가받고 있다¹⁸⁾.

그러나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노식은 철두철미하게 일본과 조선에 걸친 호토토기스계 하이쿠 문단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속에서 탄생한 조선인 하이쿠 시인이다. 백조음사(白藻吟社)에서 하이쿠를 배웠으며, 목포로 내유한 후쿠오카의 하이쿠 잡지 『아마노가와』의 주재자인 요시오카 켄지도 및 경성의 아다치 료쿠도(安達緑童) 등에게 지도와 첨삭을 간청하였고, 1927년 3월 목포음사(木浦吟社)의 『가리타고』 창간 때에는 후쿠오카의 기요하라 가이도(清原枋童)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사사하였다. 참고로 말하면 기요하라 가이도는 후일 『가리타고』를 위해 목포로 이주한다. 또 박노식에게는 도일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 짧은 생애의 대부분을 목포에서 보내고, 목포를 근거지로 해서 하이쿠 활동에 전념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호토토기스계 하이쿠 문단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당연하지만 그의 조선 시가도 또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이나 일본으로 발신되었다.

박노식과 그의 하이쿠가 놀랍게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다카하마 교시에게 강한 인상을 준 사실은 그 상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신 사이지키(新歳時記)』(1934)에 박노식의 조선 시 여섯 구를 선별 수록한 다카하마 교시에게 있어서 『호토토기스』나 『경일하이쿠』의 단골이었던 박노식은 재조선 일본인 하이쿠 시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인품에 더해 그야말로 바람직한 조선인이라 할 만한 존재였다. 다카하마 교시는 박노식 개인을 위해 하이쿠 세 구를 기고했다. 『가리타고』 창간 때의 축하 시구 '이 땅의 눈이 이 사람으로 인해 녹는구나(此の土地に此の人により雪解かな)'(1927년 3월), 폐결핵 악화 때의 병문안 시구 '하이쿠

고』第七卷第五号、1933.7)。

17) 村上杏史『朴さんの遺稿』『かりたご』第七卷第五号(1933.7)

18) 北川左人『逝ける俳人朴魯植君(中)』『京日日報』(1933.5.30.)

의 신에게 드리는 새해 첫 참배(勸請す俳句の神に初詣)'(33년 1월), 그리고 조문을 위한 시구 '박노식 그는 조선의 하이카이 부처님이구나(朝鮮の俳諧仏や朴魯植)'(33년 7월), 이렇게 세 구이다. 특히 처음으로 기고한 시구에서는 박노식이 단순한 하이쿠 시인이 아닌 하이쿠의 길을 선택한 비범한 조선인 하이쿠 시인이라는 경이를 담은 정이 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박노식이라는 조선인 하이쿠 시인을 조선 시가의 권역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가루타(歌留多)의 명수이며 나니와부시(浪花節)를 즐겼고, 하이쿠에 전념하기 이전에는 단가(短歌)나 센류(川柳)로 잡지에 게재를 했던 경험도 있던 박노식은 이른바 종주국 문화에 심취한 조선 총독부 동화정책의 산물, 더 나아가 일본 식민지주의의 화신과 같은 존재로 보인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야나기하라 교쿠도(柳原極堂)가 마쓰야마(松山)에서 『호토토기스』를 창간하던 해에 태어난 박노식은 반드시 식민지교육을 받은 세대라고는 할 수 없고, 거의 동세대인 이광수나 김동인과 같이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학력 엘리트도 아니다. 하이쿠로 주목을 받기 이전의 박노식은 조선반도 서남부의 향만도시, 규모는 작지만 일찍이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었던 목포에 살던, 일본문화에 매료된 한 조선인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조선인이면서도 하이쿠를 통해 재조선 일본인과 친교가 깊었던 박노식은 목포의 조선사회에서는 '친일'로 비판받고 있었다. '친일이라는 말을 들으며 사는 바가지꽃(親日と言はれて住めり花ばかち)'(1931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용모는 백절미수(白哲美鬚)라 불릴 정도로 항상 조선전통의 하얀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일관했던 인물이었고, 여기에서 스스로 민족적 아이덴티티에 극히 자각적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사회정책으로 백의 금지운동이 선전, 실시되었고, 도시보다 지방 쪽이 높은 효과를 얻고 있었던 동시대 문맥을 근거로 생각해봐도 박노식을 '친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부른 판단이다¹⁹⁾. 그리고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것은 하이쿠 잡지 『가리타고』에 개설되었으며 스스로 편선자가 된 『신선로 하이쿠 문단(神仙爐俳壇)』란이다. 신선로라는 것은 상 위에서 요리재료를 삶는 냄비이고, 조선 전통 궁정요리의 이름이기도

19) 『あなたは白衣を廃しなさい そして経済的な色服を』『朝鮮朝日』南鮮版(1933.4.15.)

하다. 즉 『신선로 하이쿠 문단』은 조선인 투고자를 위한 특설란으로, ‘조선인에게 첫 구를 보낸다 가을의 달밤(鮮人にホ句はやるなり月の秋)’(『호토토기스』 1933년 2월)이라는 시구에도 나타나 있듯이, 박노식은 조선 하이쿠 시인의 지도 육성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 시구의 설명문에 ‘동행자가 50여명을 헤아린다’고 적혀 있어 『신선로 하이쿠 문단』은 규모도 컸음을 알 수 있고,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유일의 조선인 전문 하이쿠란이며, 김옥봉(金玉峰)이나 이영학(李永鶴)을 필두로 하는 후진 또한 많이 배출한 조선 하이쿠 시인의 등용문이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박노식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식민주주의의 화신이었다는 결론은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정말 그렇다. 여기서 물어야만 하는 것은 ‘친일’이라고 불리면서도 조선인 하이쿠 시인을 계속했던 박노식이라는 존재가 일본의 식민주주의와 하이쿠 사이에 어떠한 변용을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4. 박노식에서 무라카미 교시로

조선 하이쿠 문단이 일본 내지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을 때, 그 하이쿠 권역의 확대 속에서 박노식이라는 조선 하이쿠 시인이 탄생한다. 그 경위는 식민지에서의 일본어 문학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하다. 호토토기스계 조선 하이쿠 문단에서 그의 조선 시가의 특징은 ‘발상이 비범’, ‘수사가 풍부’라는 점에 더해 ‘사상이 온건’, ‘수법이 확실’하다는 것에서 발견되고 있었다²⁰). 천재형이면서도 온후하고 독실하다는 이러한 평가는 다카하마 교시가 박노식에게 보내는 시구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친일적인 조선인이라는 주형 속에 예사로 가뒀 버린다.

하지만 박노식 측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의 사상적 입장은 친일과 중에서도 장혁주나 최재서와 또 다른 점진적 보수주의로 평가받는다. 덧붙여서 『신선로 하이쿠 문단』에서의 활약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가 조선인 하이쿠 시인이라는 긍지를 가지면서도 조선인/일본인이라는 민족성에 근거한 차이에 극히 의식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회로부터 ‘친일’이라 불리는

20) 北川左人『逝ける俳人朴魯植君(下)』、『京日日報』(1933.5.31.)

것에 대한 갈등이나 고뇌, 종주국의 문예인 하이쿠에 뛰어난 재능, 다카하마 교시를 경의하면서도 하얀 바지저고리라는 민족적 의상을 입는 등의 이중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조선 시가에도 드러난다. 이하의 세 구는 다카하마 교시 편 『신 사이지키』에 수록된 박노식의 하이쿠이다.

봄날의 우수 창문을 열어보면 원래 있던 산 (春愁や窓を開くればもとの山)
 얻어온 자식 토실토실 살찌네 천화분(天花粉) (貰兒のまるまる肥えて天瓜粉)
 박에 난 상처 아쉬워하면서도 계속 키운다 (瓢疵惜しまれながら育ちけり)

『봄날의 우수(春愁や)』에서는 봄의 도래에 들뜨는 기분과는 반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정취와는 반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창밖에 있는 것은 ‘원래 있던 산’이므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변화의 문제이다. 또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의 ‘토실토실 찰찔’ 모습을 노래하는 『얻어온 자식(貰兒の)』의 시구에서는 왜 여기에 ‘얻어온 자식’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면, 여기에 조선인이면서 하이쿠의 길을 걷는 그의 모습을 중첩시키면 어떨까. 『박에 난 상처(瓢疵)』의 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없다면 훌륭한 호리병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성장을 아쉬워하면서도 계속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세 구에 공통되는 것은 시를 읊는 주체나 읊어지는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그늘이나 불화 혹은 결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런 해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이들 하이쿠는 사생된 내용만으로 조선 시가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해석은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아마도 다카하마 교시가 이들 박노식의 하이쿠를 수록한 이유는 일본 내지의 하이쿠라 해도 손색이 없는 그 일반성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에 박노식이라는 고유명사를 덧붙여 읽음으로써 하이쿠의 인상은 일변한다. 이 세 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늘, 불화, 결손에서 조선인 하이쿠 시인 박노식이라는 피지배 민족과 종주국 문학으로 갈라진 주체의 동요가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노식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재조선 일본인 하이쿠 시인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는 박노식이 죽은 후, 기요하라 가이도가 귀국하고 난 다음 목포의 하이쿠 잡지 『가리타고』를 주재한 무라카미 교시(1907-1988)이다. 그는 1917년에 조선으로 이주하여 전남신보사(全南新報社)의 기자로 목포에서 생활하는 중에 하이쿠에 흥미를 갖고 『가리타고』의 동인이 된 인물이다. 다음은 무라카미 교시의 첫 번째 하이쿠집 『고려(高麗)』의 자필 연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1927년 친구 박노식으로부터 받은 연하장에 ‘포부 있으면 죽한 사람이 된다 불국화로다(抱へれば事足り子なり大手毬)’라는 시구가 있어 흥미를 느끼고, 28년에 가이도가 선정하는 『가리타고』가 창간되어 참가, 29년에는 박노식의 ‘봄 산(春の山)’(교시가 명명) 식수기념 하이쿠회에 처음 출석하였고, 30년에 기요하라 가이도의 목포 이주를 계기로 입문, 직접 지도를 받는 행운을 누렸다. [/] 31년 5월 호 호토토기스에 처음으로 입선, 33년 1월 마루노우치 빌딩에서 교시와 첫 대면, 34년부터 『가리타고』 편집에 참가했다²¹⁾.

이제까지 하이쿠라는 것과는 연이 없었던 무라카미 교시가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박노식에게 받은 연하장에 적혀 있던 하이쿠였다. 위 인용문의 ‘봄 산’은 박노식의 병 상태를 걱정한 하이쿠 동료들이 기부한 것을 근거로 구입한 산을 말하고, 또 1933년 다카하마 교시를 방문할 때 다카하마 교시에게 받은 시구는 앞에서 말한 ‘하이쿠의 신에게 드리는 새해 첫 참배’이다. 무라카미 교시에게 박노식은 연장자이며 존경하는 친구이고, 기요하라 가이도와 함께 하이쿠의 스승이기도 했다. ‘제비야 관에 우산을 씌어주렴(つばくらや 樞に傘をさしかさね)’(1933년). 이것이 요절한 박노식에게 보내는 조문 시구이고, 박노식의 남겨진 뜻을 받드는 듯, 무라카미 교시는 그의 유족을 돌보면서 전시하 통제로 인해 경영이 곤란해질 때까지 『가리타고』의 운영, 편집에 진력하게 된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 깊은 경위가 확인된다. 중주국 일본의 순국산 문예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어 이윽고 조선인 하이쿠 시인이 탄생한다. 그리고 조선인 하이쿠 시인의 하이쿠에 매료된 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일본인 하이쿠 시인이 탄생한다고 하는 경위이다. 이후 무라카미 교시는 전시하에 조선문인보국회

21) 村上杏史『高麗』(柿發行所, 1967)

이사와 다카하마 교시의 추천으로 일본문학보국회의 회원이 되는 한편, 1941년부터 두 번의 소집을 받고 패전을 북조선에서 맞이하게 된다. 패전으로 귀국한 직후에는 ‘조선 알뜰고 그림다 저 하늘 은하수(朝鮮が憎くて恋し天の川)’라는 시구를 읊는다.

여기까지라면 조선의 존경하는 친구와의 만남부터 간난신고(艱難辛苦)의 귀국으로 끝나는 재조선 일본인의 이야기로 정리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패전으로 귀국한 후 애증이 교차하는 조선에 대한 생각은 향수와도 닮은 애뜻함이 되어 계속 읊어지고 있다. ‘달 표면 위에 고려도 비치는 것 같지 않은가(月の面に高麗もうつると思はずや)’(1946년). 그 무라카미 교시의 조선 시가 중에 ‘가을 달 밤에 고려로 다시 보내는 답장 없는 편지(月秋や高麗へまた書く片便り)’(1947년)라는 시구가 있다. 물론 이처럼 ‘답장 없는 편지’는 아니지만, 그는 한국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전후의 호토토기스에 박노식이 붙였던 등불이 하나만 남아 있는 것처럼, 한국, 이도구자(李桃丘子)라는 이름이 보인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이카이로 연결된 인연에 의지하여 박노식 유족의 안부를 찾아주기를 부탁했다’²²⁾. 그리고 3년 후에 『신선로 하이쿠 문단』에도 그 이름이 보이는 아들 박기중(朴琪鐘) 등 유족이 서울에 건재해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한 통의 편지로부터 한국 하이쿠 시인과의 교류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무라카미 교시는 마쓰야마의 하이쿠 잡지 『가키(柿)』에 참가, 이후에 주재하게 되는데, 이 『가키』의 회원에는 이도구자나 최병련(崔炳璉) 등 적지 않은 한국인 하이쿠 시인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3년 5월 15일, 한국 서울에서 목련기(牡丹忌) 하이쿠회가 개최된다. 목련을 좋아했던 박노식의 사후 50년을 기념하는 하이쿠회이다. 참가자는 이영학(李永鶴)과 이한수(李漢水, 이도구자) 그리고 최병련 등 세 명, 무라카미 교시가 헌사 하이쿠 두 구를 보내왔다²³⁾. 조선 시가의 하이쿠 권역이 확대되는 중에 탄생한 조선인 하이쿠 시인 박노식으로부터 무라카미 교시, 그리고 해방 건국 후의 한국인 하이쿠 시인으로, 이와 같은 연결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조선

22) 村上杏史『朴魯植とその遺族のこと』『ホトトギス』(1932.2)

23) 崔炳璉『韓国語と日本語と—言葉の比較文化』(講談社, 1985)

하이쿠는 분명히 식민지주의의 역학에 근거하여 조선반도에 이식된 일본의 문예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목포의 조선인 하이쿠 시인 박노식을 플랫폼으로 한 하이쿠가 마쓰야마의 무라카미 교시를 경유하여 현대의 한국인 하이쿠 시인으로 연결될 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식민지 일본어문학과의 불안정한 관계가 무엇보다도 하이쿠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의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